2019년 창세기 제7강(광주 7부)

노아와 맺은 언약

말씀 : 창세기 7:1~9:17
요절 : 창세기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즘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서 어찌 사람으로써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너무나도 강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세상에 들어온 죄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죄의 세력은 가인, 라멕과 같은 자들을 사로잡아 세상에 죄가 보편화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홍수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인생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구원과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Ⅰ. 노아 홍수(7:1-8:19)

5장부터 시작된 아담의 계보가 5장 32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 이어져 온 아담의 후손들의 결국을 6장 1절부터 8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가 되었습니다.(6:3)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뿐이었습니다.(6:5) 하나님은 이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6:6) 하나님은 이렇게 된 피조세상를 쓸어버리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두해 전에 뒤쪽에 있는 7부 컴퓨터가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살리려면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니 한글파일, 엑셀파일, 주요 파일들이 모두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온통 컴퓨터가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결단을 내려야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포맷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노아시대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때가 아담으로부터 약 1,656년정도 지난 때로, 대략 10억에서 최대 100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10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인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노아의 가정마저 삼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마저 깊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과 동행하기로 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죄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피조세계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함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회복 불가능한 타락한 피조세계를 물로 깨끗케 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드디어 홍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방주 짓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전2:4).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멸시함으로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벧후2:5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빌리면 노아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재테크를 잘해야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연봉을 어떻게 높힐까?’, ‘재미있는 영화, 뭐 없나?’, ‘맛 집이 어디 있

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노아라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을께. 그때 믿어도 구원받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고후6:2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서둘러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7장 5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입니다. '다 준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커야 하는지, 꼭 상중하 3층으로 해야 하는지, 밖에만 칠하면 안되고 안까지 역청을 칠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정한 짐승도 꼭 실어야 하는지 자기 생각을 앞세워 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성경은 홍수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홍수 사건을 두고 비가 오면 그 때 땟목을 만들고, 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살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40여일동안 아라랏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 것을 기준으로 강수량을 조사했더니 시간당 9.2m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1일 최대 강수량은 태풍 루사 때로 강릉에 하루 87cm의 비를 뿌린 것입니다. 하루 87cm의 비로도 강릉시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지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질 때, 공중의 제왕 독수리도 용감한 사자도 재난을 먼저 알고 피한다던 쥐와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바퀴벌레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특히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음대로 살던 자들, 목자 속 썩이며 뺀질거리던 자들, 자기 잘난 맛에 큰소리치며 살던 자들 모두 물을 먹고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잠기고 전남대도 잠기고, 천하에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그 어떤 것도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23b절을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오직' 이란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최후의 날을 대비하여 만든 피난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라고 여겨지는 곳은 1960년 미국 정부에 의해 설계된 캔자스 주에 있는 서바이블 콘도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방은 22억 정도 하는데 핵폭발을 견딜 수 있도록 9m두께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콘도 안에 있으면 최후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9m가 아니라 90m벽으로 둘러싸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상에 넘쳐나는 무서운 홍수를 보며 자신들이 방주를 짓고 방주에 탑승하게 된 것 하나만큼은 자신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신의 한수였구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사실 별것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세상은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받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날까지 방주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도 노아와 방주에 탄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50일을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덮고 있던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자녀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 아래 고역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광야를 배회할 때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살

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밤낮없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방주 안의 생활이 힘겹고 불안해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십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한참 동안 물위를 날아다니다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물이 빠지기를 목이 빠지듯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의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저녁때가 되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물이 아직 남아 있다면 감람나무가 새 잎사귀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새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땅에 물이 걷히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반가운 징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방주에서 뛰어내리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때에라도 허리에 줄을 매고서라도 물에 뛰어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물의 감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스스로 방주에서 나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각종 짐승들의 배변 냄새로 머리는 아프고, 배멀미로 속이 울렁거려서 한시라도 빨리 방주 밖을 나가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땅이 다 마른 후에도 두 달 가까이 방주 안에서 나오지 않고 더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배로 들어가라고 하시면 배로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시면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찬양가사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스케줄, 나의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너무 약하게 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이 너무 더디게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보다 앞서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17절을 보십시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시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무엇을 해야 할 거 같습니까? 우선 당장 오늘 밤부터 자야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눅눅한 옷도 말려야 하고, 식구들도 챙겨야 하고, 살림살이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감격은 잠깐이고 노아 앞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제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모든 인류 문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II. 노아와 맺은 언약(8:20~9:17)

8: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싹 쓸어 버리셨는데 그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어려서 그 마음의 계획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6:5절에 보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철저한 부패 상태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셨고 대 청소를 하셨습니다. 홍수 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요 딜레마였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범죄할 때마다 홍수심판으로 또 쓸어버리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9:11-1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홍수심판을 내리셔서 쓸어버리신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면 너무 두려워서 기를 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도 또 홍수심판이 오지 않나 무서워서 간이 콩당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구름이 온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홍수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무지개는 영어로 rainbow입니다. rain(비) + bow(활). 무지개는 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무지개라는 말의 원어가 '케쉐트'로서 '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무기인 활이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의 도구인 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상 죄를 보면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가 났다가도 무지개를 보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화를 참으시게 됩니다. 무지개처럼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아이구 내가 참아야지" "얘들이 부족하잖아" 9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그 언약에 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 언약은 은혜 언약이요, 사랑의 언약,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십자가 언약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붓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로마서 3:23-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눈감아 주는 것'입니다. 내 죄로 봐서는 당장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 때문에 진노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가도 구름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비가 그칩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올라갔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어 밀면 주님의 심판의 손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a new and living way)이 열리게 되었습니다(히10:20). 그래서 십자가 언약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화평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심판받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허물과 실수와 죄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로 병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일방적으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보시고 나의 죄를 길이 참아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때까지 무지개 언약으로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